

존 밀링턴 싱의 『서구세계의 플레이보이』: 영웅의 의미와 자기창조의 미학*

박 두 현

I. 서론

존 밀링턴 싱(John Millington Synge)의 주요작품 중의 하나인 『서구세계의 플레이보이』(*The Playboy of the Western World*)는 아이러니 수법의 플롯구조와 동시에 기존 장르 형식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새로운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작품의 주제의식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기존의 영웅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있을 것이다. 많은 비평가들이 싱이 제시한 영웅주의를 해석 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아일랜드(Ireland) 출신으로서 영향력있는 평론가인 디클란 카이버드(Declan Kiberd)는 이 극을 아일랜드의 전설적 영웅인 “쿠홀린(Cuchulainn) 신화의 패로디(Parody)로서”(118) 보는 반면, 또 다른 평론가는 이 극의 주인공 크리스티 마혼(Christy Mahon) 을 언어 마술의 시인이자 물리적 힘을 갖는 영웅으로 보았다(“he has both the verbal and physical powers of a hero”)(Kilroy 441). 다시 말해서 이런 부류의 평론가들은 주인공 크리

* 본 논문은 2014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스티가 보여주는 최종적인 국면에서의 성장을 내적 역량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이들 기존의 비평가들의 영웅에 대한 해석은 대체적으로 크리스티를 기존 아일랜드 전설 속에 나오는 영웅과는 다르게 반 영웅(anti-hero)으로, 혹은 가짜 영웅(mock-hero)으로 묘사한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런 평가들은 주인공 크리스티가 보여주는 성장이 주변의 사회적 환경의 영향들 간의 관계를 축소하거나 간과하는 측면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런 아일랜드 영웅들의 내적 역량에 관한 해석은 게일신화(Gaelic myth)를 바탕으로 세속적인 성인으로서의 관점을 기반으로 둔 해석일 것이다. 하지만 싱은 이 극에서 영웅의 생성과정을 내적역량과 자율성에 의미를 둔 해석보다는 주인공 크리스티의 경험과 성장을 자기 창조의 과정으로서 묘사함과 동시에 기존에 아일랜드에 내려오는 민담설화나 전설에 나오는 영웅의 개념이 보여주는 강력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에 기반을 둔 영웅주의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했다는 점이 옳을 것이다. 더구나 이 극은 전통적인 영웅 서사시의 구조—즉, 도덕적인 구원과 회복, 불굴의 의지 그리고 자기희생의 의지 등등—를 전복시키고 변형하여 영웅의 개념을 사회적 환경에 반응하는 자기 창조자로서의 영웅주의로서 묘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싱의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일랜드의 스토리텔링 전통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싱이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영웅의 의미를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아일랜드 스토리텔링의 전통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Scotland)의 게일어(Gaelic)를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주 즐기는 여흥이었고 예술적인 표현이었다. 나아가서 구전 전통으로 내려온 이런 문화의 표현 방식은 아일랜드의 문화적 전통이며 유산이다. 그런데 이런 구전 전통이 아일랜드에서 영어로 전이될 때 많은 작품들이 소실되었으며, 나머지 작품들은 잘 알려진 예이츠(Yates), 그레고리 여사(Lady Gregory), 싱(Synge)등이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Irish Literary Revival)에 의해 새로운 문학 작품으로 탄생되었고 또한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 거기에 싱으로 대표되는 아일랜드 극작가들이 재구성한 아일랜드 무대 스타일(Irish-stage style)은 독특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전통에 따른 새로운 문학스타일로 재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싱은 자신의 극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예술은 협력이며 문학이 번성한 시기에 놀랍고 아름다운 구절들은 스토리 텔러나 극작가의 손에서 동시대의 풍부한 어조로 장식이 된다. (Preface 1935)

이런 스토리텔링의 방식은 구전 전통으로부터 이어져 왔는데,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문화 운동은 주로 게일인 동맹(Gaelic League)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주로 게일 문화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문학 운동으로 재건된 문화운동이었다 (McKendry 1). 손 리차즈(Shaun Richards)는 아일랜드의 언어와 문화 운동으로 부흥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된 이 동맹이 당시에 중요한 정치적 삶의 중심에 있었고 싱은 이러한 게일인 동맹에서 표현된 구전 전통의 방식을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기존 서사 구조를 현대성에 맞추었다고 보았다(29). 대체적으로 평론가들 사이에서 일치된 견해들은 싱의 작품들에 나타난 주인공들을 아일랜드 민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싱의 작품은 궁극적으로 이런 문화 정치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싱이 『서구세계에서의 플레이보이』에서 보여주는 문화정치학은 아마도 기존 영웅주의에 대한 예술가적 도전이며 아일랜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신화의 재구성을 의도한 부분일 것이다. 그 일환으로 싱은 이 작품에서 아일랜드 신화와 전설 그리고 동화라는 서사를 상당부분 이용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기반으로 삼았다.

나아가서 싱은 작품에서 기존의 전통적 아일랜드 스토리텔링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영웅주의를 사회적 현실에 기반을 둔 자기 창조의 과정으로서 묘사한다. 그는 이 작품의 서문에서 “모든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마술로서 그리고 열광적 분위기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깊은 욕망으로 만들어 진다” (Introduction 8)고 언급하였듯이 싱이 보여준 영웅주의는 영웅의 내적인 함의 보다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 창조(self-creation)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크리스티라는 인물을 코믹하고 냉소하는 영웅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사회적 상황과 요구에 반응하는 인물로 그렸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싱이 묘사한 영웅의 탄생 방식은 상당부분 공동체의 우발적 상황이 중요한 국면이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의 수법으로 다루어져 있음을 상기 할 때 싱의 접근은 기존의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에서 볼 수 있었던 전통적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영웅의 의미속에 내재화시켰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주인공 크리스티가 초기 아버지 살해라는 스토리를 지어내서 주목받게 되는 어찌면 실없는 가짜 영웅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정신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추적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마요라는 현실적인 공동체 속에서 요구받는 우발적 상황(예를 들면 우상을 향한 사람들의 잠재된 욕망)의 영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데에 주목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싱이 이 극에서 보여준 영웅에 대한 묘사방식은 아일랜드 구전 전통을 보존함과 동시에 지역적이고, 그리고 특수하며 나아가 사적인 국면에 중요성을 둔 자기 창조적 반응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II. 쿠홀린 신화와 영웅 서사의 형식

영국에 아더 왕(King Arthur)이라는 전설적인 영웅이 있다면 아일랜드 켈트신화(Celtic Myth)에서 주목받는 영웅의 모습은 쿠홀린의 전설일 것이다. 이 전설은 켈트 신화의 ‘얼스터 시기’(Ulster cycle)¹⁾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켈트 신화에서 가장 강하고 용맹하며 위대한 영웅으로서 그 영웅의 활약에 관련된 풍부한 스토리와 무용담은 아일랜드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더 왕의 전설을 훨씬 능가하는 신화이자 서사라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나타난 영웅의 주된 정신은 주로 도덕적인 덕목들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향은 고대 그리스 서사에서 많이 보이는 헤라클레스(Hercules) 혹은 아킬레스(Achilles) 등에서 보이는 영웅들의 모습들과 유사한 데 주로 명예와 고귀함, 용맹함 그리고 육체적인 강인함 등의 요소들이 영웅들의 내적인 모습에 갖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맞닥뜨리게 될 모험들은 주로 이런 자질들이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쿠홀린의 전설 역시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는 엄청난 무용을 자랑하면서 켈트 전사의 고결한 덕성과 신의로 무장해서 아일랜드에서는 영웅의 대명사였다(Coghlan 15-18).

과거 아일랜드의 영웅서사와 싱이 보여주는 영웅묘사와의 차이점을 언급하면

1) 중세 아일랜드 신화 속에 4개의 시기 중에 하나로서 이 주인공은 1세기 경 얼레이드(Ulaid)라고 알려진 동부 얼스터와 북부 레인스터를 포함하는 옛 아일랜드인이다. 이 전설에서는 아일랜드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긴 설화들이 이어져 내려온다(*Pocket Dictionary of Irish Myth and Legend*. Coghlan, 1985).

서 카이버드는 싱이 쿠홀린의 위대한 행동들이 영웅들의 위대한 행위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겁 많은 남성들에 의해 칭송을 받았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껴서 재창조의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당시에 영웅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습작이 있었다고 한다.

싱은 쿠홀린의 위대한 행동에 너무 겁이 나서 그런 행동을 흉내낼 수 없는 남성들에 의해서 칭송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 시대 아일랜드 운동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습작이 있었는데 쿠홀린과 고대 영웅들의 전설에 헌신한 그룹들과 세속 성인과 게일 신비주의로서의 서구 농부들의 비전에 관심을 기울였던 그룹이 그것이다. 싱은 고대 전설적인 영웅들의 특성을 보잘 것 없는 농촌출신 플레이보이로 재창조해서 아일랜드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날카로운 풍자를 했다. (171)

카이버드는 싱이 크리스티를 묘사하는 목적이 주로 아일랜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라는 국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의 주장은 크리스티의 행동과 성장을 과거 게일 신비주의와 영웅들에 연계시킨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고대 영웅들의 모습을 재창조하면서 아일랜드의 과거와 현재를 비판했다는 데에 주목해서 영웅주의의 생성이 외부적 관계와의 작용—즉 공동체의 영웅에 대한 새로운 요구—이 있었음을 언급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카이버드가 주장했듯이 세속적인 모습의 영웅이 창조 되었다는 점인데, 그런 논의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동체의 영웅에 대한 요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싱은 이 작품에서 이런 아일랜드 신화 속에 나오는 영웅의 이미지에 공동체의 모습을 부각시켰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영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아일랜드 사회가 주는 공적인 의미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이 핵심적인 것으로 보인다.

서구 영웅주의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연구로는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수많은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은 책, 『천개의 얼굴을 가진 영웅』(*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1973)에서 영웅들이 경험하는 3단계의 과정을 일정한 패턴으로 정의하였는데 그들의 여정은 발단, 진입, 복귀 등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고 대체적으로 영웅들은 이 과정에서 원형적 모습을 보이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모험에의 부름”(call to

adventure)(41)이라는 보편적 형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영웅들은 몇몇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고 궁극적으로 모험을 통한 자유를 누린다고 보았다. 이런 자유는 상당 부분 영웅이 갖는 힘과 영향력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설혹 영웅들이 자신들이 많은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시작했던 곳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여정을 끝낸다고 보았는데 이런 영웅에 대한 분석은 영웅들의 자율성과 의지를 상당히 단순화시키면서 주로 영웅의 내적 역량에 주목하다보니 영웅주변의 사회적 환경과 요구 내지는 필요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나아가서 캠벨은 쿠홀린의 전설을 소개하면서 쿠홀린이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시켰다고 설명하면서 그 전설적 영웅의 초인적 내적 역량을 강조하였다—“아일랜드의 중세 얼스터 연대기의 중요 영웅인 쿠홀린은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하며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압도하면서 잡자기 나타났다”(284). 또한 캠벨은 신화와 전설 속에 나오는 원형적인 모티브에 주목하면서 영웅의 탄생과 변화가 주변의 시련을 극복하고 타개해나가는 내적 자율성에 국면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았다. 그는 “쿠홀린의 영웅적 여정을 예외적인 단순성과 분명함을 가지고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근본적인 업적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추었다”(Cuchulainn’s hero-journey exhibits with extraordinary simplicity and clarity all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classic accomplishment of the impossible task)(294)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영웅의 탄생과 여정에 있어서 사회적 욕망이라는 집단의식에 주목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싱은 위에 언급되었듯이 분명 쿠홀린으로 대표되는 아일랜드의 영웅 서사를 인지하였고 그것이 동시대 아일랜드 공동체에 의미하는 바를 상기하였다. 이것은 싱이 기존의 영웅의 이미지와는 상당 부분 다른 의미의 영웅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래서 싱이 이 작품의 주인공 크리스티의 자아인식과 획득의 과정을 상당 부분 사회적 영향과 자극을 통한 문제로서 보여주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기존의 영웅의 서사와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기존의 영웅들이 겪는 서사 방식은 주로 “거대한 서사”(Koch 7)로서(meta-narrative) 고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서사 방식은 주로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투쟁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이런 개인들이 전진하기 위해서 외부적 세계에 들어가면 외부의 저항은 제거가 되는 형식을 띤다. 그리고 그들 개인들이 힘을 획득하

는 세상에 들어설 때 그들은 주변의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자(actors)가 되고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주인공 내지는 저자(authors)가 되는 것이다(Koch 8). 이런 영웅 서사를 염두에 둔 예이츠는 반복적으로 영웅으로서 쿠홀린을 상기시켰는데 싱은 이렇게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에서의 과거의 영웅을 상기시키려는 시도의 가치를 부인하고 오히려 영웅이 유기적인(organic) 공동체에서 탄생하며 그 공동체는 텅 비어 있고 소진된 채로 남겨 두었다고 본 것이다(Dean 160). 그러므로 싱이 보여주는 영웅의 의미는 영웅이 지닌 능력과 그 여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시련과 역량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패턴에서 벗어나 우발적 외부적 조건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크리스티의 자율성과 자기창조의 국면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의 사적 개인으로서 자기창조의 과정은 리차드 로티(Richard Rorty)가 설명하듯이 현대 문화의 우발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구성되며 궁극적으로 미적으로 형성된 된다고 보았다(Who we are is not there to be discovered, but instead open to be made and shaped, and should therefore be aesthetically)”(26). 그의 견해에 따르면 자기 창조의 과정은 공동체 내의 우발적인 상황 내지는 욕망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극중에서 마요 사람들이 크리스티의 말과 행위에서 보여주는 반응과 그에 따른 크리스티의 고유의 변신이라는 측면에서 부합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크리스티가 보여주는 행위가 기존의 전설적 영웅이 보이는 행위와 의식이라는 거대 서사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우발적 욕망에 스스로 부합해 나간다는 점이다. 이런 창조적 행위와 역량을 로티는 흥미롭게도 예술에서 볼 수 있는 미적(aesthetic)인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볼 때, 크리스티가 작품 속에서 만들어가는 자기 창조의 과정은 외부적 상황과 연관되어 상당 부분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는 사적 개인(private self)으로서의 그가 외부적 영향과 평가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우선 크리스티의 행위와 언어는 마요 지방의 마을 사람들과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의미화 될 수 있는데 이 관계는 구체적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맞

물려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 “플레이보이”라는 의미는 도덕적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는 기존 가치의 전복에 뿌리 박혀 있어서(Murphy 49), 극 행위의 상당 부분이 크리스티가 외부적 반응을 받아들여 스스로 전설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통해 영웅으로서 정체성 형성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더구나 극 속에서 대사가 이루어지는 구성은 크리스티가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크리스티가 시골의 한 마을 마요의 마이클 플래허티(Michael Flaherty)가 운영하는 한 술집에 들어 닥쳐서 아버지를 삽으로 죽였다고 말할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이로움으로 바라본다.

크리스티: 나를 나무라지 마세요. 내가 나의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화요일은
그런일을 했던 주일이었어요.

페귄(완전히 놀라면서): 아버지를 살해 했다고요?

필리: 대단한 젊은이로구먼!

지미: 오! 신이여 은총을 주시옵소서!

마이클(상당히 존경스럽게): 그 행위는 교수형감인데! 젊은이! 그런 행위를 했
었을 때 분명 이유가 있었을 텐데!

크리스티: 삽을 들고 그의 머리의 정수리를 내리쳐서 고꾸라지게 했어요. 그러
더니 아버지는 내 발밑에서 빈 주머니처럼 쓰러지고 말았죠. 전혀 신음
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 말이죠. (CP 17-18)²⁾

그들은 감자 밭에서 아버지를 삽으로 살해 했다고 하는 크리스티의 행위를 때론
적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행위를 용맹함으
로 바라본다. 이런 반응에 이어서 그는 곧 페귄(Pegeen)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의
영웅이 된다. 그리고 바로 새로운 평판으로부터 기뻐하며 아버지 살해(patricide)
라는 기존의 원형적인 모티프³⁾가 새로운 의미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상기된 크리스티는 1막의 끝에서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은 것은 바보였지 않았는가(“wasn't I a foolish fellow not to kill my
father in the years gone by?”)(CP 30)라며 자신에게 되물으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2) J. M. Synge, *The Complete Plays of John M. Synge* (N.Y: Vintage Books, 1935). 이하 상
의 작품의 인용은 CP와 쪽수만으로 약칭한다.

3) 예를 들면 Sophocles's *Oedipus Tyrannus*에서 부친살해의 원형적 모티프를 볼 수 있다.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창조한다.

도덕적 가치가 전도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마요 사람들의 특성의 예는 페권의 발언에서 볼 수 있는 데 극의 초반에 그녀의 약혼자 손 키오(Shawn Keogh)와의 대화에서 서구세계의 영웅들이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점들이 있다고 말하며(CP 9) 이웃국가들의 전설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성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발언을 한다

페권(조롱하며): 지금 당신들은 경찰(영국경찰)의 눈을 가격하여 뺨뺨이를 만들어 버린 대닌 설리만 같은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암양들을 불구로 만들어 6개월간 구금이 되었던 마커스 쿨은 늙은 여자들이 발밑에 똑똑 눈물을 흘릴 때까지 신성한 아일랜드의 감동적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보증수표였는데 당신들은 이 같은 사람들을 지금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CP 9)

이것은 마요라는 공동체 속의 정신세계에 가학적 폭력성이 자리 잡고 있을 뿐더러 권위에 저항하는 폭력성은 칭찬 받아야 할 만한 가치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녀는 약혼자 손처럼 권위에 도전하기를 겁내는 어떤 사람도 가치가 없으며 권위에 도전하는 크리스티야 말로 용맹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찬미하고 “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두렵다”(CP 23)고 말하면서 크리스티의 행위를 흠모하며 관심을 갖는다(CP 17-24). 페권의 말은 마요에서 도덕적 가치가 리더십의 부재에서 상당히 우발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마을 사람들의 내면의 과거 기억 속에 잠재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영웅 모델에 대한 열망이며 이런 열망은 크리스티라는 초기의 기만적인-진정한 의미에서 영웅이라 칭할 수 없는-인물을 새로운 스타일의 영웅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마요라는 공간에서 크리스티에 대한 반응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극의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에서 크리스티는 마을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으며 이것은 그의 영웅주의에의 진보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가 아버지를 삼으로 살해했다는 말을 들은 후에 지미 파렐(Jimmy Farrell)은 “외로운 장소에서 용맹함은 보물”(Bravery's a treasure in the lonesome place)(CP 19)이라고 반응한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상기된 크리스티는 2막의 첫부분에서 스스로 독백을 하며 “지금부터 늘 지지분한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영성한 젊은 애처럼 되지 않고 내 스스로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거야”(CP 31)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를 예고하게 된다. 이런 변화의 조짐은 다른 마을 사람에 의해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 크리스티가 마을로 온 다음날 아침 또 다시 마을 사람들의 요구에 아버지 머리를 삼으로 내리쳐서 뺨게 만들어 반쪽으로 찢개 놓았다(CP 37)라고 말하자 마을 여자들은 크리스티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경이로워요. 신의 축복을! 당신은 진짜 사나이예요”(Well you’re a marvel! Oh, God bless you! You’re the lad surely)(CP 37)라고 말하며 “당신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크리스티를 치켜세운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크리스티의 존재는 경찰의 권위, 나아가서는 영국의 군사행동의 남용에 도전하는 실용적이고도 상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필리(Philly)가 페퀸에게 제안하듯이 “경찰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있어서 네가 그 친구를 집에 두면 경찰들은 아무도 수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야”(CP 19)라고 말하며 크리스티를 잡일꾼(pot boy)으로 삼아서 그들의 공동체 속에 두려고 한다. 아마도 이즈음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티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주의에 대한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크리스티라는 외부인을 두고 이들 사이의 논의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영웅”(Cusack 161)으로서의 이미지를 크리스티에게 투영시키려 한다.

이렇게 일련의 마요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욕망들은 크리스티에게 그들이 원하는 영웅의 형상을 심으려고 하고 마을 사람들이 부여하는 이미지는 실제로 크리스티를 변화시키는데 크리스티가 마을에 도착한 아침에 마을사람들이 보는 방식처럼 자신을 변화시켜서 보기 시작한다.

(그는 벽에 거울을 꺼내서 의자 뒤에 그것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그의 얼굴을 닦기 시작한다) 나는 내가 잘 생겼는지 똑똑히 알지 못했어. 설혹 이것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악마의 거울이라 할지라도 말이야. 난 지금부터 성숙해 질거야. (CP 31)

그러므로 크리스티의 획기적인 변신은 마을 사람과 크리스티 사이의 상호 작

용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부친 살해를 여자들과 과부 퀴(Widow Quin)에게 더 과장해서 남발을 하고 그들로부터 열광적인 칭송을 받는다. 그리고 페권의 약혼자 손이 그에게 페권을 떠나는 조건으로 뇌물로 준 화려한 옷을 기쁘게 입고 그의 용맹스러운 행동에 스스로 빠져들고 만다(CP 46). 이런 모순적인 자기 이미지—즉 스스로 범하는 자기기만과 외부적 반응에 움직이는 자아확대—는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그는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젊은이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변화한다. 크리스티는 그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에 분개하며 자신을 잡으려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다.

소리치지 마세요 왜냐고요? 결국 당신들이 거짓말의 힘으로 오늘날 위대한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은 지금 나를 외로운 것이 가장 불쌍한 것이라고, 더구나 세상의 바보들과 서로 어울리는 것이 아마 더 바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CP 74)

그러므로 그가 외부평가에 유약하고 소심한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호전적으로 돌아선 마을 사람들을 대치하는 자존감과 자립심을 견지하게 된 젊은이로 성장하는 것은 분명히 외부적인 요인에서 깨닫게 된 것이며 외부적인 반응과 상호 작용에 의한 과정으로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과정은 크리스티라는 사적 개인에 대한 우발적 환경이라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요 사람들의 열정과 가치들은 고정되고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 없이 주인공이 기존의 자신의 이미지를 벗고 스스로를 재창조 해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스티의 자율성, 나아가서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은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나온 본성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외부와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이다. 즉, 크리스티가 마요의 마을 사람들과 접촉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기존에 있었던 일정한 궤적을 다시 밟는 행로, 다시 말해서 캠벨(Campbell) 등이 주장한 영웅들의 모험에의 부름(Call to adventure)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행로이다. 이것은 기존의 의식과 표현을 답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술이 지향하는 창조와 상상력의 발현과정과 유사한 것이다. 결국 극에서 크리스티는 초기에 겁 많고 소심한 사람에서 실제로 극의 후반부에서는 사랑에 있어서나 스포츠에 있어서도 자신감에 차있고 매력

적인 청년으로 변신한다. 이 과정에는 마을 사람과의 접촉과 영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티는 아버지와 같이 마요를 떠날 때 자신감에 차서 말한다—“나는 지금부터 닥쳐올 모든 투쟁의 주도자”(I'm master of all fights from now)(CP 80)라는 점을 선언한다. 또한 크리스티는 나중에 그를 잡으러 마을로 들이닥친 아버지에게 마지막 부분에서 마요에서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말한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수많은 축복을! 왜냐하면 당신들이 궁극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우두머리처럼 나를 변화시켰어요. 내가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죽는 그 시간까지 인생을 자신 있게 헤쳐 나가 살 수 있을 방식으로... (CP 80)

크리스티는 자신이 변화된 것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영향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삶의 비전을 제시한다. 마지막에 크리스티가 마을을 떠날 때 페킨은 “서구세계의 유일한 플레이보이를 잃었다”(I've lost the only Playboy of the Western World)(CP 80)고 한탄한다. 이 말은 아마도 싱이 기존 영웅서사의 이미지를 아일랜드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로 승화시킨 말이 될 것이다. 즉, 영국으로부터의 예속과 굴종의 민족에서 주어진 조건을 스스로 재창조할 수 있을 민족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의 표현이 크리스티라는 인물이며 작가 싱이 보는 아일랜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일 것이다.

IV. 맺는말

싱은 이 극을 통해서 아일랜드에 내려오는 영웅의 개념을 외부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재구성 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티가 영웅화되는 과정을 내적역량의 소산으로서 보다는 외부적 환경에 반응하는 사적 개인으로서의 자기 창조의 과정으로서 미적으로 승화 시켰다. 다시 말해서 영웅의 의미를 외부의 우발적 조건에 반응하는 인물로서 중점을 두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조지 큐색(George Cusack)이 지적하듯이 마요라는 지역에 과거 영웅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티를 영웅으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159) 그 역시 마

을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자기를 재창조하는 능력 있는 젊은이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크리스티의 변신은 아일랜드 문화에 있어서 대중의 욕망과 상상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미래에 언젠가 나타날, 그들이 숭배할 수 있는 영웅의 모습을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크리스티와 마을 사람들의 상호 작용은 브렌다 머피(Brenda Murphy)가 “아일랜드 사람들에 대한 자의식적인 논평”(47)이라고 불렀던 것과 유사하게 싱이 자신의 관객 앞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논평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극에서 묘사된 마요라는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은 모던 스타일의 영웅서사에 중요한 요소가 됨과 동시에 사실적 저항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더구나 극이 주는 주요 의도 중의 하나는 이런 저항의 메카니즘을 조성하는 것이 아일랜드적 무대의 역할임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함의는 싱이 이 극을 통해서 보여주는 문화 정치학일 것이다. 결국 더블린의 관객들은 싱의 극을 보면서 아일랜드의 리더십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양상들과 동시에 진정한 아일랜드적 캐릭터를 향한 욕구를 보았을 것이다. 극의 아이러니는 아일랜드인의 페이소스(pathos)가 낙관적 비전으로 확대되는 것이고 고대 전설이 현대적 의미로 전이되면서 아일랜드의 모던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이 극의 초반부터 결말까지 나타난 것은 모던 스토리텔링의 방식이 크리스티의 자기창조의 과정과 멋지게 결합하여 새로운 미학적 차원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대)

인용문헌

- Campbell, Joseph.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Princeton, N.J.: Princeton UP, 1973.
- Coghlan, Ronan. *Pocket Dictionary of Irish Myth and Legend*. Belfast: Appletree, 1985.
- Cusack, George. *The Politics of Identity in Irish drama: W. B. Yeats, Augusta Gregory, and J. M. Synge*. N.Y.: Routledge, 2009.
- Deane, Seamus. "Synge and Heroism." Ed. Ronald Ayling. *J. M. Synge: Four Plays*. London: Macmillan, 1992.
- Henigan, Julie. "'The Power of a Lie': Irish Storytelling Tradition in *The Playboy of the Western World*." *New Hibernia Review* 6.3 (2002): 92-112.
- Kiberd, Declan. *Inventing Ireland*. Jonathan Cape, London: Random House, 1995.
- Kilroy, James F. "The Playboy as Poet." *PMLA* 83.2 (1968): 439-42.
- Koch, J et al. *Narratives of Agency*. Jahrbuch: BSJ C Loynes, 2003.
- McKendry, Eugene. "An Introduction to Storytelling, Myths and Legends." *BBC Northern Ireland Learning*. August, 1998. <<http://BBC.co.uk/ni/schools/storyteller>>
- Murphy, Brenda. "'The Treachery of Law': Reading the Political Synge." *Colby Quarterly* 28.1 (1992): 45-51.
- Richards, Shaun. "*The Playboy of the Western World*." Ed. P. J. Mathews. *The Cambridge Companion to J. M. Synge*. Cambridge: Cambridge UP, 2009.
- Rorty, Richard.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Cambridge: Cambridge UP, 1989.
- Styan, J. L. *Modern Drama in Theory and Practice: Realism and Naturalism*. Vol 1. Cambridge: Cambridge UP, 1981.
- Synge, J. M. *The Complete Plays of John M. Synge*. N.Y.: Vintage Books, 1935.

Abstract

John Millington Synge's *The Playboy of the Western World*:
Heroism and the Aesthetics of Self-Creation

Doohyun Park

This paper traces out the heroism and the process of self-creation that the hero, Christy Mahon in *The Playboy of the Western World* written by John Millington Synge, carries his journey through. Before Synge's plays, the legendary heroes in Irish storytelling tradition have shown that they had innate physical capability and autonomy in the face of many obstacles. Commentators have never mentioned about the community's desire and contingent values, which can turn some private individual into a hero. Christy's process of self-creation in Synge's play is to a great degree influenced by the community called Mayo. In this sense, the heroism Synge has described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mmunity and Christy Mahon. Furthermore, the author shows the cultural politics, because through the play he offers the new meaning of heroism his country may need in the future.

■ Key words : John Millington Synge, *The Playboy of the Western World*,
heroism, self-creation, Irish storytelling
(존 밀링턴 싱, 『서구세계의 플레이보이』, 영웅주의, 자기창조, 아
일랜드적 스토리텔링)

논문접수: 2014년 11월 4일

논문심사: 2014년 11월 25일

게재확정: 2014년 12월 9일